◀ 금호타이어 '엑스타 DX 에코'

타이어 기술 급속 진화…자동차 산업의 총아로

'발'이 편해야 승차감도 좋죠

펑크 나도 주행 가능한 '런플랫' 개발
금호·한국타이어도 초고성능 제품 경쟁
고유가 시대 연료 절감형 바퀴 큰 호응

타이어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자동차의 성능 향상을 위해선 타이어의 기술 진보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 세계 타이어업계는 끊임없는 기술진보를 통해 자동차산업의 성장을 주도해왔다. 국산 타이어업계도 대형차와 수입차 급증 추세에 따라 초고성능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유가시대를 맞아 연료절감형 타이어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타이어의 진화가 자동차업계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타이어는 자동차의 '발'이자 '심장'**=타이어는 '달리고, 멈추고, 회전하는' 자동차의 모든 움직임과 직결된다. 타이어의 성능에 따라 승차감과 제동력, 구동력, 코너링, 연비 등이 좌우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는 타이어가 제 역할을 못할 경우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 타이어가 자동차의 '발'이자 '심장'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타이어의 중요성은 그 어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타이어는 지난 1903년까지 '러버 휠(Rubber Wheel·고무바퀴)'로 불렸다. 이후 수 만개의 자동차 부품 중 가장 피곤하다고 해서 'Tire'라고 이름 지어졌다.

◇**런플랫 등 신기술 도입 '봇물'**=그동안 국내·외 타이어업계는 제품에 각종 과학의 원리를 도입하며 기술 진보를 이뤄왔다.

최근 출시되는 일부 프리미엄급 수입차는 펑크(플랫)가 나도 주행이 가능한 '런플랫(Run Flat)' 타이어를 기본으로 장착한다.

이 타이어는 펑크가 나도 시속 80~90㎞ 속도로 일정 거리를 달릴 수 있다. 타이어를 갈아 끼우기 힘든 장애우를 배려해 개발됐지만 최근엔 안전을 중시하는 운전자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타이어 안에 링을 감아 공기가 빠져도 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서포트링' 타입과 타이어 옆면 고무를 두껍게 하는 '사이드월 강화' 타입으로 나뉜다.

◇**접지면 넓히고 폭은 축소**=차량 고급화의 영향으로 '초고성능(UHP·Ultra High Performance)' 타이어가 각광받고 있다.

이 타이어는 땅에 닿는 접지면은 넓어지고 폭은 좁아지는 등 차량의 안정성과 속도감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다. 가격은 일반 타이어보다 3~4배 비싸지만 판매량은 매년 30% 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타이어업체의 초고성능 타이어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UHP 타이어 브랜드인 '엑스타(ECSTA)' 는 지난 2002년 출시 이후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또 빗길과 마른길에서 강한 견인력을 발휘하는 SUV전용 '엑스타 STX'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26~28인치의 대형 타이어로 북미지역에서 개당 1천10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한국타이어도 '벤투스 프라임'과 '벤투스 V12 에보' 등의 제품 출시를 통해 UHP 타이어의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 한국타이어 '벤투스 노블'

◇**연료절감 타이어, 비싸도 '불티'**=고유가의 영향으로 연료절감형 타이어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연료절감 타이어의 원리는 실리카 고무를 사용함으로써 회전 저항을 줄이는 것이다. 저항이 줄어들수록 연비절감 효과가 크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금호타이어는 이달 초 연료절감 타이어 '엑스타 DX 에코'를 출시했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용 저연비 타이어로, 실리카 고무로 재료의 결합력을 높여 회전 저항을 25% 감소시켰다.

연비는 물론, 마모 성능이 크게 개선됐으며, 싼타페, 쏘렌토 등에 장착이 가능하다.

한국타이어의 '앙프랑'은 지난 6월 출시 이후 두 달간 일반 타이어 대비 145%의 판매량을 보일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앙프랑'을 장착하면 차량의 연비가 2% 정도 높아진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시험 결과에 따르면 연간 기름값을 7만800원 가량 절약할 수 있다.

브리지스톤의 연료절감형 타이어인 'B-STYLE EX'도 올해 수요급증의 여파로 초기 공급물량이 전량 소진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폭스바겐 게릴라 로드쇼 17일 광주 신세계백화점

폭스바겐코리아가 광주 등 전국 9개 도시에 걸친 '폭스바겐 게릴라 로드쇼'를 개최한다.

폭스바겐은 지방시장 공략을 위해 17일 광주 신세계백화점에서 자사의 차량 전시 및 시승행사 등을 골자로 한 로드쇼를 연다.

이날 로드쇼에서는 럭셔리 세단인 '페이톤'을 비롯, 콤팩트 SUV인 '티구안', 만인의 연인 '뉴 비틀' 등 폭스바겐의 다양한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지난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창원(14일), 대구(16일) 등을 거쳐 광주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현장 시승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다.

우선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 폭스바겐 고객이 게릴라 로드쇼 차들과 합류해 카퍼레이드에 등록 후 동참하면 주유상품권을 증정한다.

또 게릴라 로드쇼 차량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폭스바겐 홈페이지(www.volkswagen.co.kr)에 올리면 다양한 기념품을 준다.

이밖에 폭스바겐 홈페이지를 통해 모델 황인지와 남은주가 매일 일기 형식으로 풀어내는 '폭스바겐 걸즈 다이어리'를 통해 생생한 현장 이야기와 에피소드를 확인할 수 있다.

시승 신청 및 로드쇼 관련 내용은 폭스바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576-3602.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로드쇼는 평소 폭스바겐을 직접 경험하기 어려웠던 고객들이 진정한 독일 명차를 몸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